



사람 · 어울림 · 꿈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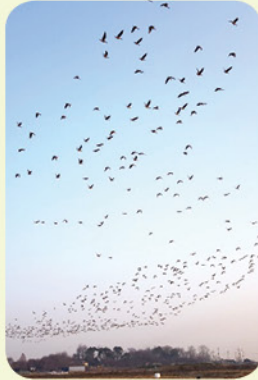


베트남 평화순례 (남북 분단선 17도선)



부천YMCA

사람



아울리

꿈



광장

01	새해인사글 2	2019 회원모집운동 보고대회 부천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반대 집회를 다녀와서 이수영
02	특집 4	3.1운동 100주년과 YMCA 김기현 故 허상보 초대이사장님 참배 장근영 부천Y에 보내는 편지 서광선
03	클럽이야기 12	[아버지교실] 아버지 교실이 나아갈 길은?? 장경문 [등대생협] 생애 처음 만든 찜쌀고추장 이선미
04	교실탐방 16	[아기스포츠탈] 서진이에게 쓰는 편지 김정민 설렘과 행복이 있었던 수영대회 허주희 [어린이] 지도자클럽을 수료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다 양정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치유 꿈의 학교 온새미로
05	부천Y 3대 과제 캠페인 23	[대장들넉 가족농부 활동] 재두루미야, 올해도 반가워! 2018년 대장들넉 : 사람과 자연을 품다 최진우
06	의창한담(醫窓閑談) 30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 박종훈
07	세상을 보는 창 33	한정숙
08	회원광장 34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 탐방 최유진 즐거운 제2의 인생 날개를 펴다 김환수 부천시민평화대학 '회복적 정의' 교육을 마치며 공미영
09	함께하는 문화산책 40	공간에 '사람'을 담다 왕정현
10	만화로 보는 밥상톡톡 42	밥상야흥. 칼슘의 보고가 우유가 아니라 채소라고? 연은미
11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8) 44	"새해의 시작" 한면희
12	부천Y 이모저모 46	주요일정 및 클럽일정 48

발행인 김영주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9년 1월 31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기지단 박종훈, 한정숙, 왕정현, 노진영, 연은미, 박영애, 채시은, 김지현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y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내 속의 여우를 잡자



김 영 주
(부천YMCA 이사장)

* 2019년 신년예배에서 김영주 이사장이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전문은 부천Y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우 떼를 좀 잡아 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 주오.” (아가서 2:15)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축복 받으며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연입니다. 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는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움아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사용하면 보물창고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폭탄이 되어 나를 파괴 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내 속의 여우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은 분노를 가져 옵니다. 내 안의 여우인 미움은 분노와 더불어 나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치 못함을 아시기에 대신 짊어져 주시며, 의지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분께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옆에 있는 이웃을 무시하고 혈통은 태도도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탐욕이 있습니다. 현재 너무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는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 교만, 탐욕 등의 쓴 뿌리를 내 마음에서 뽑아내 버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속의 여우를 잡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여 그 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걸어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쫓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평안과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향해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019년에는 우리 와이 식구들 모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꿈을 이루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작은 완성들이 모여 아름다운 와이 공동체를 이루고, 부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와이가 되어, YMCA 목적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3.1운동 100주년¹⁾과 YMCA



김 기 현
(부산YMCA 사무총장)

100년 전 한반도

최근 몇 년 사이 바람직한 현상 중 하나가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1871년 신미양요로 시작하고,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영화 ‘동주’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해방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극적인 요소나 과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잠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864년 대원군과 쇄국정책, 1866년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병인양요,

1)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다양한 기념 및 학술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필자가 역사를 논할 지식과 경륜은 부족하나 3.1운동 100주년을 YMCA로서도 큰 의미가 있어 회원들과 함께 ‘3.1운동 100주년’과 ‘YMCA의 관계와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글이다.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896년 독립협회 창립,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²⁾(YMCA) 창립,
1905년 을사조약, 1906년 재일 조선YMCA³⁾ 창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과 고종 퇴위,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 강화,
1919년 1월 고종 서거, 2.8 독립선언, 3.1 만세운동,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860년부터 1919년까지 겨우 60년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이어진다. 거대한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서구문명과 일본 제국주의, 그 크나큰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 젊은이, 민초들의 받아들임과 밀어냄, 도전과 응전, 창조와 항쟁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일제에 의해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1898년)된 일과 황성YMCA 창립(1903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YMCA 관계자는 9명이었다. 또한 3.1운동을 전후해 함흥YMCA(1918년 3월), 선천YMCA(1919년 6월), 평양YMCA(1921년 3월), 대구교남YMCA(1921년 12월), 광주YMCA(1920년 8월), 원산YMCA(1925년 7월), 전주YMCA(1925년 10월)가 연이어 창립되면서 한국YMCA는 3.1운동이라는 민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조직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당시 분위기를 엿보기 위해 글 두 꼭지를 보면,

“열강의 침탈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개화를 부르짖던 독립협회가

2) 지금의 서울YMCA 당시 서울은 ‘한성’으로 불리었는데 고종이 국호를 ‘대한’이라 고치고 국왕의 칭호도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특히 독립협회 지도자들에 의해 서울을 ‘황성’이라고 불렸다.
3) 재일 한국유학생들의 거점이자 2.8 독립선언이 행해진 곳이다.

열강의 음모와 그들의 앞잡이가 된 수구집권세력과 다시 그들의 앞잡이 황성협회의 폭력 앞에 붕괴된 지 4년만의 일이었다. 독립협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단체로서 다시 YMCA가 출현한 것이다.”(송건호, 『한국YMCA운동사』)

“1919년 1월 6일 조선인 유학생들은 동경의 조선YMCA 회관에서 신년옹변대회를 열고 독립운동의 방략에 대해 협의했고, 난상토론을 거쳐 이튿날 서춘을 비롯하여.....유학생 임시대표위원이 구성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2월 8일 조선YMCA 회관에서 유학생 총회를 명분으로 한 ‘조선청년독립단대회’가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 낭독 후 시가행진을 예정했지만 일본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임시대표위원 중 상해로 출발한 이광수와 조선으로 귀국한 최근우를 제외한 9명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한규무, ‘3.1운동과 한국YMCA’, 『기독교사상』)

3.1운동과 촛불혁명

YMCA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 하나가 역사와 자주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천YMCA가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1903년 황성YMCA를 창립했던 지도자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하는 질문과 맞닿아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19년 2월 8일, 제국주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과감하게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펼쳤던 젊은이들의 기상과 의기에 놀라게 된다. 또한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비폭력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추동하고, 참여했던 민초들의 거대한 물결에 가슴 떨리고, 그 뒤 잔혹하게 전개되었던 일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YMCA 활동

으로 이어졌던 민족의 저력에 고개 숙이게 된다.

작년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개최했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모임에서 “3.1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폭력 촛불혁명이었다.”는 참가자 한 분의 말과 “민족대표 33인 중 YMCA 관계자가 9인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스스로 일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연행되었다. 3.1운동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파고다 공원에서 개최되었던 민초들의 만세운동인데 이곳에서 학생YMCA 전문학교뿐 아니라 중등학교 학생YMCA도 큰 역할을 하였고, YMCA에서는 이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중앙대 장규식 교수의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2016년 말~2017년 초를 뜨겁게 달군 비폭력 촛불혁명, 우리는 지금도 그때의 뜨거운 열기와 자발성, 시민의식과 공동체성, 시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군중의 합성으로 포효할 때 느꼈던 가슴 떨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짓밟혀졌지만 100년 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되었던 민초들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근원이었을 것이다.

부천Y의 길잡이별이 되어 주신 故 허상보 초대이사장님을 기억하며...



장근영
(부천YMCA 아가스포츠팀단 교사)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대전에 있는 故 허상보 이사장님의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 회관 앞에 부천Y 식구들 11명(허상운부이사장님, 김영주이사장님, 최순영이사님, 김기현사무총장님, 박명애부장님, 김행란부장님, 정다운간사님, 홍승식선생님, 김광제선생님, 박다정선생님, 장근영)이 모였다. 이 날은 연이은 강추위에 점퍼와 장갑, 목도리 핫팩까지 추위에 단단히 맞설 수 있도록 모두들 중무장을 하고 왔다.

대전 시내가 흰하늘이 보이는 묘소에 다함께 둥그렇게 서서 추도식을 하고는 故 허상보 이사장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담긴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부천 Y가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은, 허이사장님께서 소명으로 생각하고 헌신하신 덕분이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 고결한 희생정신에 숙연한 마음마저 들었다.

김영주이사장님의 추천으로 다함께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 해마다 허이사장님의 기일에 맞춰 묘소 참배 후에 인근에 다함께 할 수 있는 곳

을 들른다는 데, 올해로 5주기가 되니 벌써 다섯 번째 추억을 만든 셈이다. 아마도 허이사장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덕에 기일을 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프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허상보 이사장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사막에 푸르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단비처럼 당신은 부천YMCA에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부천Y가 힘들고 녹록치 않았던 일들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계신 덕분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한줄기 빛이 되어주는 길잡이별처럼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별을 보며 방향을 잃지 않고 부천Y의 길을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 주소서.”



경애하는 김기현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매번 광장을 보내주셔서 부천 Y 식구들의 활동과 아울러 김 총장님의 지도력을 살피고 감동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날 때 마다 한 마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반가운 나머지 감사를 표시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호에는 25명의 부천Y 식구들이 김홍수 교수의 안내와 인도로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길따라 백두산을 거쳐 러시아 접경까지 다녀오신 “기행문”은 기행 문학으로서도 즐거웠고, 역사학으로서도 소중하고 교육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천Y에 전화를 걸어서 애써 메일주소를 받았는데, 총무님의 이름을 내 컴퓨터에 찍었더니 이미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메일을 써서 미안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일제하 전도사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일본 경찰 성화를 피해서 온 가족이 만주로 망명해 살았기에 심양, 단동, 신의주, 만포 등 북한 땅과 만주 벌판을 종횡무진 돌아 다녔습니다. 주로 기차로...

만포에서 기차로 망명길에 올랐던 슬프고 분노에 찬 여행이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만포에서 2년 간 살았는데,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죽은 다음에라도 거기 묻히고 싶은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나는 참대를 반으로 쪼개서 만든 “스키”를 타고 즐기던 추억이 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향은 중강진이었고 자성에서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강계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치하에서 “양강도 후창”이란 곳에서 목회하는 아버지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산당이 싫어요.”를 실감했습니다. 얼마 못

있고, 평양으로 야밤 도주했던 쓰라린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 백두산에는 2016년 10월 연길에서 출발해서 연길대학 교수의 안내로 올라가는 행운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안내하는 교수 왈,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모두 마음이 착한 분들인가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백두산 날씨는 10일에 하루 정도 만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만에 날씨가 좋은 걸 보니, 확실히 훌륭하신 분들 만 오늘 모시고 백두산에 가게 됩니다.” 이 친구 우리에게서 뭘 바라고 이렇게 “아침을 떠나?” 했는데 과연 천지를 내려다보는데, 북한 땅을 멀리 까지 바라보는데 문제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기행문을 쓴 학생 말처럼, 다음엔 한국 쪽으로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처럼 천지 물을 손으로 떠 마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04년 겨울 처음으로 연길의 과기대(김진경 박사 창설) 시찰 차 갔다가, 용정은진중학교를 방문하고 윤동주 시비를 보며 감상에 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는 월남 (베트남) 평화 기행을 하신다는 광고문 보았습니다. 동서 냉전의 한가운데서 전쟁의 희생을 치를 뿐 아니라, 잔인무도한 한국군이 난동을 부린 전쟁터에 가서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참회하는 좋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사무총장님의 건투와 창의적이고 정치 신학적인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2018. 11. 8.

사랑과 기도로, 서광선



서광선 세계Y 중경회장, 이대 명예교수

아버지교실

부천YMCA 아버지 교실이 나아갈 길은??



장 경 문
(아버지교실 교문)

모든 성인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가 되는 연습과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버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왔다. 때문에 부모 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이전 세대의 모습이 건강하고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식하여 학습해왔다. 결국, 자녀의 세대에 맞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자기의 주관대로 부부 간, 자녀와의 소통이 없이 배워 온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아내와 어린 자녀와의 갈등이 해결방법을 모른 채 싹트기 시작한다.

우리 집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왔으며,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가정생활에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가족 문제에 대한 무엇인가를 개선하기 위해 1991년 아내가 부천YMCA 아가스포츠단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교실 교육을 알고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바쁜 시간 안에서도 8주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아버지교실 교육 수료 이후 후속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제1기 ~ 2기 회원들이 모여 통합된 부천YMCA 아버지교실 클럽을 만들었으며 이후 자체적인 프로



그램을 만들어 제3기 이후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이 모여 지금의 부천YMCA 아버지 교실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버지교실의 주요 목적은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이고, 그러한 실천으로 클럽활동과 야외캠핑 등 다채로운 부부 및 자녀와의 활동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왔다.

그동안 부천YMCA 아버지교실은 부천YMCA에서 진행하는 시민활동과 좋은 아버지로서의 많은 역할 프로그램을 해왔고, 지역 사회에서 변화된 아버지가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민포럼 등을 통해 변화하는 가정, 변화하는 아버지의 실천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왔다.

그 모임이 어느덧 28년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군입대, 결혼, 자녀출산 등 많은 성장이 있었다. 또한 클럽에 참여한 우리들은 장년과 노년을 향해 가는 입장이 되었다.

아버지교실 운영에 있어서 부천YMCA는 중심 기둥이 되었으며, 그 기둥에 기대어 지금까지 클럽의 목적을 잃지 않고, 발전시킨 것에 대하여 부천YMCA 간사님들과 사무총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초창기 창립을 기초한 나로서는 클럽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클럽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합하고 협조한 모습들에 대하여 선배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부천YMCA 아버지교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장년과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며 더욱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장년과 노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 설계와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등대생협

생애 처음 만든 찹쌀고추장



이 선 미
(그레이트 등대)

지기월례회 밥상 활동에 '찹쌀고추장 만들기'를 보았다. 고추장을 사먹는 것보다 방법을 배워 직접 만들어 먹고 싶은 생각과 어릴 때 친정어머니가 들통과 나무로 된 긴 주걱으로 만들었던 엄마의 고추장이 생각이 나서 참여하였다.

고추장 만들기의 처음은 물을 끓여 식힌 후 50도가 되면 엿기름을 넣고 불린다. 불린 엿기름을 손으로 주무른다. 엿기름은 많이 주무를수록 맛이 좋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물 주물 계속 하였고, 실제 색이 식혜 색처럼 변해가는 것이 신기해서 신나게 주물렀다.

그 다음으로, 약한 불로 엿기름을 삭힌다. 삭히는 과정은 기다림과 관찰의 과정이다. 눌러 붙지 않게 저어가며 삭혀 지기를 기다리며 등대식구들과 중국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적당한

온도가 되길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 적당한 온도로 삭혀진 엿기름에 조청을 넣고, 시원한 곳에서 식혔다. 식은 뒤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천일염을 넣고 섞어 고추장을 완성하였다.

고추장이 완성된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어려울 것 같아 만들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던 고추장이 밥상활동을 통해 함께 참여한 선배 촛불님들의 조언과 더불어 완성되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했다는 마음에 뿌듯함이 배가 되었다. 고추장만들기 밥상활동에 참여하며 내가 느낀 감정은 같이 참여했던 등대식구들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다. 고추장 만들기로 자신감 뽐뽐!

숙성되지 않은 고추장의 첫맛은 맵고, 짭짤함, 달지 않으나 고소함에 나의 첫 고추장이라는 성취감과 신기함이 더해진 맛이였다. 신기하게도 직접 만든 고추장은 친정어머니가 만든 맛과 비슷했다.

매년 김장을 마친 친정어머니는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메주가 완성되면 고추장과 된장을 하였다. 집에서 가장 큰 들통과 나무로 된 긴 주걱으로 휘휘 젓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항아리에 고추장과 된장을 가득 담고 바람과 햇빛이 더해져 어머니의 고추장과 된장의 맛은 더 깊어졌다. 내가 만든 첫 고추장은 어머니의 깊은 맛과 달랐지만,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집에 가는 길에 작은 항아리를 하나 샀다. 어머니가 했듯이 항아리에 고추장을 담고, 옷소금을 뿌리고 천으로 덮었다.

친정 가는 날, 고추장 항아리를 품에 안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드렸다. '내가 만든 고추장이야, 내가 처음 만든 거야.' 라고 자랑하며 드렸다. 검지손가락으로 고추장을 찍어 맛을 본 어머니는 '메주가루를 넣었네, 맛이 괜찮다.'라며 웃어주셨다.

생애 처음 만든 찹쌀고추장을 소중한 어머니에게 나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기스포츠탄

서진이에게 쓰는 편지



김 정 민
(6세 늘푸른반 오서진 엄마)

인천YMCA에서 부천YMCA로 전학 온 지 한 학기가 다 되어갈 무렵, 서진이의 공개수업을 보고 엄마는 무척 감사하고 감동도 크게 받았단다.

전학 첫날, 얼떨결에 등 떠밀려 차에 올라타고, 집에 와서는 예전 YMCA에 다시 다니고 싶다고 투정 부려서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했어. 심지어 둘째날은 가기 싫다고 엉엉 울며 내 목덜미를 꼭 잡고 놓지 않아 선생님이 억지로 안아서 차에 태워 갔지. 그날 엄마는 같이 울며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 여린 우리 서진이가 이사 때문에 전학이라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해서 미안해. 다시는 이어나 전학으로 우리 서진이 힘들게 하지 않을게’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이는 차츰 적응을 하는 듯 보였고, 새로 사귀 친구들 이야기도 곧잘 꺼냈지. 전학으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된 무렵, 부천 YMCA에서의 공개수업에서 우리 서진이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엄마의 염려가 모두 불필요한 것임을 깨달았단다.

먼저 진행된 체육시간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훌라후프를 돌리는 모습, 진지하게 북을 치며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 당차게 뽕틀을 구르는 모습 등 모두가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했지. 아동극 시간에는 빛나는 눈빛으로 포랑포랑 대

사를 이어가던 씩씩한 서진이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단다.

‘금도끼, 은도끼’에서 돌쇠 역을 맡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비교적 긴 대사를 큰 목소리로 틀리지 않고 해내서 놀랐지. 하긴 우리 서진이가 설령 아무 대사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는 나무역을 맡았어도 엄마 눈엔 자랑스럽고 기특해 보였을 거야.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이어가던 핸드벨 시간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났 놓고 보다가 어느덧 눈가에 축축히 눈물이 맺혔단다. 모든 친구들이 집중해서 자신이 맡은 음에서 종을 울리는 모습은 가히 완벽할 정도였지.

엄마가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서진이의 표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순간순간들이 모두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공개수업을 통하여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진이의 삶을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며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들 었단다.

엄마의 아들이어서 고마워. 엄마도 처음 해보는 육아로 힘들거나 자신이 없 을 때, 걱정이 앞설 때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 서진이가 해내는 것처럼 엄마도 잘 헤쳐 나갈게. 서진이에게 바라듯 엄마도 최선을 다할게.

끝으로 전학 온 서진이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그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

와준 늘푸른반 친구들에 게 이 글을 통해서나마 고 맵다고 전하고 싶구나.

이제 얼마 후면 7세반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선생 님, 새 친구들과 1년을 시 작하겠지. 이제는 엄마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서진 이를 더 믿으며 응원할게. 우리 내년에도 잘 해보자. 사랑하는. 서진아!



아기스포츠탄

설렘과 행복이 있었던 수영대회



하 주 희
(7세 한마음반 노지호 엄마)

운동에 항상 갈망이 있었던 나의 어린 시절 덕분이었을까 아들을 낳아서 운동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찌나 강했던지, 어찌면 YMCA는 나에게 약속된 유치원이 아니었을까 싶다. 처음엔 지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랑과 나의 결정으로 지원했지만 지호가 씩씩하고 즐겁게 적응도 잘하고 무엇보다 체육활동을 좋아해서 나의 만족도를 더 높여 주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덧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호의 부모로서 YMCA를 함께 했던 마음들, 수영대회를 참여했던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담임선생님의



제안은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써보겠다고 했다. 노지호!! 노지호!! 소리를 크게 지르며 응원했던 6세 수영대회를 먼저 떠올리며...

사실 6세 수영대회는 경험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지호 또한 그랬다. 그간 병아리 수영을 해왔지만 자유형, 배영 모두 5위권 안으로 결승에 오르자 마음이 달라졌다. 뭐 하나라도 타면 좋겠다, 지호 화이팅을 외치며 온갖 격려를 다했다. 결과는 자유형 3위로 입상을 하였고, 배영은 4위로 입상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영대



회 입상이 더 의미가 컸던 것은 7세 병아리 수영 선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 제일 좋았다. 7세 때도 병아리 수영을 꾸준히 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추천 없이 등록이 됐을 때 지호가 스스로 해 냈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웠다

또 하나의 추억... 7세 수영대회. 7세 수영 대회는 지호도 나도 상을 타고 싶은 욕심이 처음부터 있었다. 나도 모르게 “엄마 떨린다.” 했더니 지호가 “엄마가 떨리면 지호는 더 떨리잖아.” 하는 말에 아, 내가 실수했구나 싶었다. 6~7세 병아리 수영과 반 수영, 사실 이 교집합 안에서 상을 탈거란 생각을 했고 자유형, 배영 모두 기록 순위 1등으로 결승에 오르게 되었다. 결과는 자유형 2등, 배영 2등을 탔다. 당연히 잘했고 대견했다. 지난 2년간 지호가 수영 대회를 스스로 참여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끝으로, YMCA를 다니면서 많이 성장하고 행복해하며 3년 동안 단 하루도 YMCA 안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지호!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려니 마음 한 켠에 걱정도 있지만, YMCA에서 만큼이나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우리 지호의 3년을 함께해주신 아기스포츠탄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간의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어린이Y

지도자클럽을 누르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다.



양 정 혜
(민주시민반 임효원 엄마)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YMCA지도자클럽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배운 것이다.

더불어 산다는 것의 참 뜻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나'이다. '나'를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등 입체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함을 알아간다.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요즘 시대는 그것이 어렵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잣대로 이미 그어져 있으니 말이다.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YMCA 공동체 활동이 더욱 좋다. 그곳에선 건장한 삶을 배운다. 친구, 우리, 세상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가치를 나눈다. 그리고 밖에서 이미 정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의 가치로 삶의 기준점을 찾아간다.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다. 이순간이 YMCA의 매력이 극대화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철원 평화를 찾아 떠나는 하룻밤캠프

YMCA 매력에 정점을 찍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더불어 산다는 개념의 확장이다. 더불어 사는 삶속에 자연이 들어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대장들넉과 함께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배워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함께 공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개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다.

더불어 살기 위해선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편견 없이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더불어 살 준비가 된 셈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앞으로 아이들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꺼이 아이를 같이 키워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 아이가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다는 믿음이 부모인 나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YMCA 늘 응원합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치유 꿈의 학교 온새미로



2018년 청소년 치유 꿈의 학교 온새미로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일정으로 총5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꿈의 학교에서는 일상생활 속 '차별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주제로 이와 관련된 노래(이워니디센자¹⁾ 등)를 배우고 아프리카 악기로 구성된 이색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

여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회복적마을콘서트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에게 그동안 연습했던 노래와 연주공연을 선보이면서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하고 새로운 그리오²⁾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청소년 치유 꿈의 학교 '온새미로'는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김새 그대로,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으로 꿈의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꿈의 학교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는 평소 관심 없었던 악기에 새로운 흥미와 재능을 알게 된 친구,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자신감을 되찾은 친구, 아프리카 선생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손도 잡지 않았지만 활동에 계속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선생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장난도 칠 만큼 밝아진 친구 등 다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꿈의 학교를 통해서 차별과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의 회복, 마을의 소통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계속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1) 이워니디센자 : '서로 차별하지 말고 보살피며 살자'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씨야무족 언어이자 DIABATE AMIDOU의 노래 원곡.

2) 그리오(Griots): 서아프리카 지역의 음악가, 역사가, 문학가, 시인, 판사, 작가, 선생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가들을 의미하며 음악과 춤으로 마을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함.

대장들녘 가족농부 활동

재두루미야, 올해도 반가워!

올 한해 농사도 잘 마쳤습니다. 모내기부터 벼베기까지, 한해 농사를 함께한 가족농부들, 한겨울을 나기 위해 먼 길을 날아 대장들녘에 찾아온 재두루미와 큰기러기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볍씨먹이를 주러 왔습니다.

재두루미야, 큰기러기야, 쇠기러기야!
올해도 우리 대장들녘에 찾아와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고 편히 쉬다가렴~



재두루미야 맛있게 먹어! 큰기러기도 맛있게 먹어!



2018년 12월 _ 눈오는 대장들녘의 재두루미들 (사진: 한병호 교수)



대장들녘 가족농부들

2018년 12월 _ 큰기러기떼



2018년 대장들넉: 사람과 자연을 품다



최진우 박사
(부천시 이사,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대장들넉 논습지를 지키기 위해 2017년부터 부천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장들넉 친구들'을 구성하여 대장동 논 1,200평을 임대하여 가족농부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물다양성 대탐사, 재두루미 먹이주기 행사, 달력 및 엽서 만들기를 통해 대장들넉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작년에는 부천시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을 결성하여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저지를 목표로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4일 오후 7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약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대장들넉 생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대장들넉 지

키기 활동을 함께 마무리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한해 돌아보기 발표는 대장들넉 생명포럼, 생태조사, 가족농부, 시민캠페인 활동 4개 영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생명포럼을 통해 대장들넉이 지닌 생물다양성 및 환



경적 가치, 미기후환경을 조절하는 바람길의 기능, 시민건강 최후의 보루, 농업생태공원 등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시흥 호조벌 사례를 통한 논의 생태자원화 정책의 성과와 전망, 논습지를 지키면서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례와 비전, 생태계서비스 영향 평가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명포럼은 대장들넉 보전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대응논리를 갖추고 운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장들넉 생태조사 활동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다채롭게 공유되었습니다. 그간 어린이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태탐사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대장들넉 생태대탐사와 성토현황 조사, 봄철에는 대기질 조사(부천시지역 10곳), 여름에는 금개구리 대탐사와 땀꿍이 조사, 늦여름에는 피사리 활동, 가을에는 황금들판 생태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장들넉은 계절마다 다양한 생명과 아름다운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장들넉 금개구리는 가족농부 한해농사 돌아보기를 발표는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으로 활동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4월에 가족농부 첫모임에서 시작하여 5월 모내기, 6월 논생물 모니터링, 8월 벼꽃 그리기, 9월 허수아비 만들기, 10월 가을 추수 벼베기와 벼짚꼬기 등 다양한 활동의 모습과 풍경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재두루미 먹이주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쌀 한톨의 무게를 몸소 느끼면 논에서 함께한 시간들로 알차게 보냈으며, 내년에도 꼭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들녘 시민캠페인 활동은 지난겨울 부천Y 이사, 실무자, 회원들이 중·상동 도심 캠페인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캠페인 활동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천역 마루광장 캠페인, 6·13지방선거 시장후보 정책질의, 도심 곳곳에서 대장들녘 개발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 마을을 다니며 알리는 자전거 라이딩, 부천시청 앞 토요일 나눔 장터 홍보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하게 재두루미 뱃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여 시민인식 증진에 기여하였고, 곧 만화책자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옥 명예교수님께서 대장들녘 지키기 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특별강연을 위해 참여하셨습니다. 특별강연으로 '기후변화위기와 도시의 대응'이란 주제로 각종 환경이슈와 실천방안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만들며 토지의 '공공성'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입니다. 우리는 논습지가 만들어 낸 차고 시원한 공기, 풍요로운 지하수와 토양, 다양한 못생명의 서식지,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자연놀이터, 협력과 공생의 농업공동체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대장들녘의 공익적 가치를 사유적 개발에서 지켜내고, 공공의 도시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2019년 부천Y 시민운동이 더 확대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회원모집운동 보고대회



저마다 각자의 한해를 돌아보고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12월, 부천YMCA 회관 5층 체육관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회원모집운동 보고대회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는 쌀한톨, 그린합창단, 지락피락, 녹색가게, 선용, 디딤돌, 아기스포츠탄, 어린이Y, 이사회에서 오셔 60여 분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린합창단 아름다운 목소리 합창으로 열린 이번 보고대회는 이어서 아기스포츠탄 6세반이 연극인 '금도끼 은도끼' 발표를 하며 유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우리는 평화가 되자!**' 라는 주제 아래 '탈핵, 대장들

녘 지키기, 미세먼지 줄이기'를 3대 과제로 가지고 클럽과 실무자가 직접 선정하여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진행된 이사회에서의 노래 발표는 보고대회의 감초와 같은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변함없이 3대 과제를 지켜나가서 그 영향력이 부천 전지역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천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반대 집회를 다녀와서



이수영
(아기스포츠단 교사)

지난 10월 아기스포츠단 선생님들은 부천의 3대 과제 중 탈핵과 관련하여 부천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설치 반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밀양 송전탑 할머니들이 오셔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한전과의 10여년간의 투쟁 속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탈송전탑, 탈핵 운동의 주체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며 특고압 설치 반대 집회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전해 주셨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생명과 삶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아기스포츠단 5세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탈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각반 교실에서 밀양 할매, 무지개 괴물 동화를 통한 독서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다섯 살에게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나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구연을 통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무지개 괴물 동화는 핵발전소 사고로 발전소에서 나온 무지개 괴물이 주인공 라울을 아프게 하고 쓰러진 라울이 꿈속에서 무지개 괴물을 지구 밖으로 쫓아내어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 되지만 현실에서의 라울은 결국 죽음을 맞는 내용에서는 아이들도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핵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후 아기스포츠단 5세 선생님들이 마음보다는 행동으로 함께하고자 두번째로 방문한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설치 반대 집회는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추위로 거리행진은 할 수 없었지만 현 집회 진행 상황과 앞으로 일들에 관해 전해 들으며 힘찬 구호와 함께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 후 부천YMCA의 김홍여 마을지기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특고압 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 결정통지 예정 전에 이미 한전은 행정소송을 하였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며 이 소송제기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싸움이 예상됨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동지역은 공동주택주거지역으로 특고압 관련 14개의 학교가 걸쳐 있어 더욱 어린 자녀에게 미칠 위험성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의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한전이 공사 구간 중 일부 지역의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지하 4m이하의 15만 4,000볼트가 지나가는 기존 전력구에 34만 5,000볼트의 특고압을 추가로 매설하는 계획을 확정 짓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들으며 한전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대처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고압 반대집회를 다녀오며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가족 그리고 지역,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으며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쿨존 특고압 반대!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내야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



박 중 훈
(부천Y 중경이사, 삼화한의원 원장)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유병장수’ 시대다.

무병장수(無病長壽)가 회자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이른바 ‘백세시대’(Homo hundred)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초고령 백세시대로 진입하는 원인으로 위생환경의 개선, 건강 가치 우선의 경제적 여유, 의료제도와 기술의 발전이 꼽히고 있다. 그런데 어찌 좋은 점만 있으랴?

초고령 사회는 노인의 비율이 전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신문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인구보다 많아졌다.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따른다. 미래 청년층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비율이 3:1이라는 예측이다. 현 세대와 같이 노후준비가 소홀한 경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는 만성질환 노인층이 51% 증가했고 특히 치매환자는 46만 명에 이르렀다. 정신건강 질환자도 177만 명으로 늘었다. 이제 암보다 부양가족의 부담이 크고 어려운 치매가 더욱 무서운 병이 되었다.

행복수명(Happy life years)이란 게 있다. 행복수명이란 ‘자신과 가족 모두가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기간’을 말한다. 100세를 상징하는 10월×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기념도 한다. ‘행복수명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령, 은퇴연구소’는 구체적으로 ‘노후측정지표’를 내놨다. 건강수명 73.6세, 경제수명 77세, 사회활동수명 72.5세, 인간관계수명 75.2세로 평균 행

복수명은 74.6세다. 그런데 2017년 평균수명은 81.8세, 기대수명은 83.6세이었다. 즉 기대수명과 행복수명이 8.5세 차이가 난다. 가뜰이나 ‘힘없고 뺨없는’ 말년이 그 기간만큼 불행하다는 뜻이다. 대안도 있다. ‘잔존가치를 높여 경제수명을 늘리고 몸과 마음을 개선하여 건강수명을 높인다. 또 소통으로 사회활동과 인간관계수명을 늘리자’는 방법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건강수명에 대해서는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보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만성질환,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유병장수’ 시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만성질환, 노인질환, 정신질환에 한의학적 치료는 효과가 우수하다. 게다가 일상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한의학 용어와 의사와 환자의 긴 대면진료시간은 노년층의 이해와 심리적 친화도가 높다. 이 점은 의료공급자 중심에서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체제로 바뀌는 추세에 안성맞춤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적인 침, 뜸, 한약의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단기기, 진료수단, 치료기기의 발전으로 신뢰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도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민중의학, 치료의학에서 귀족의학, 보약의학, 자본주의 의학으로 가는 한의계의 배금경향. 다른 하나는 양의계의 적대와 냉대다. 한의학을 무속학 정도로 치부하는 양의계는 막강한 권력으로 법적, 제도적 면에서 한의학을 배척하는 갑질에 능하다. 유병장수의 백세시대는 그들만의 업적이 아니다. 통섭의 시대에 맞게 소통과 이해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생활한방이야기

독감 예방책

Q 환절기 독감이 걸렸을 때 어떻게 면역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타미플루 약물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한방치료법은?

A 바야흐로 독감이 극성인 철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 일어난다. 증상으로는 고열, 전신 근육통 및 관절통, 인후염, 기침, 가래, 콧물 등이 주

증상으로 심하면 중이염, 폐렴, 구토, 설사를 동반한다.

초기에 일반감기와 독감의 구별이 잘 안되어 타미플루가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추세다. 그런데 타미플루가 의식장애, 환청,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타미플루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 이래저래 걱정이다. 이러니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예방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독감이나 감기의 예방과 치료는 이제 일반상식이 되었다.

예방책으로는 균형 있게 잘 먹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과 면역력을 높인다. 또 공기를 통한 호흡기 전염이므로 독감이 유행하면 다중시설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집안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과일주스 등으로 비타민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미 환자가 발생했다면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가 사용한 수건이나 수저 등은 소독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독감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통계 상 약 70% 정도 발병률을 낮춘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돈이 들어도 4가백신이 효과가 좋다. 한방이라고 다르랴.

*** 홍삼차** 만성질환자, 노년층, 심신허약자, 독감을 앓았던 사람에게 탁월하다. 단, 어린이나, 고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 구절초차** 모든 연령계층에 좋고 특히 여성층에 효과가 탁월하다. 이미 앓는 사람의 회복도 촉진한다. 독감 유행철에 차로 늘 마신다. 감초를 조금 넣어 끓이면 마시기에도 좋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을에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두고 쓰면 좋다.

*** 꿀배차** 잘 알려진 민간약으로 배의 꼭지를 따고 속을 도려낸 다음 꿀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꼭지를 닫고 고아 즙을 마신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은 한약재 '패모'를 더 넣는다. 단 꿀이 들어가므로 어린이나 당뇨병자는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 생강대추차**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므로 잘 알려져 있다. 유기농 꿀껌질을 넣어도 좋다.

*** 기타(유자차, 녹차)** 유자차는 어린이에게 먹이기 쉽다. 녹차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호흡기가 안 좋을 때 사용한다.



♥ 일상생활에서 한의학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가는 코너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cotldhs@naver.com 메일주세요.



획 지나버린 한 해...
올해엔 어느 시의 구절처럼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이고 싶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 탐방



최 유 진
(뮤즈등대 촛불)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은 Y를 향하고 있었다. 에너지프로슈머 마지막 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에너지 자립마을인 “성대골 탐방”을 하기 위해서였다.

Y에 도착하니 등대에서 참여하는 건 우리 “뮤즈”등대와 “마중”등대 뿐이었더라. 아직 신입 촛불들에게는 외부로 나가는 자리는 아마도 좀 어렵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쉽기도 했지만, 나 역시도 등대 4년차 정도 되어서야 Y의 활동들에 대해 하나둘씩 좀 더 이해하는 것 같다. 부천에서 서울 상도동까지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성대골에 도착하여 준비해주신 다과를 먹으며 함께 수다를 나누다 보니 추위에 얼었던 몸이 녹았고 잠시 후 성대골의 차은주 사무국장님이 성대골 설명을 해 주셨다. 성대골의 처음은 동네에 도서관이 없어서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불편함”에서부터 시작된 성대골의 처음은 이윽고 동네의 마을 교육시설 미비를 해결하는 데에까지 확장되었다고 한다.

성대골은 동네에너지일자리 사업(2012), 에너지슈퍼마켓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여러방면으로 마을 활동을 진행하는 노력을 하여, 후에 박원순 서울 특별시장을 통해 성대골 사례가 발견·소개되었고, 지금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탈핵 운동을 진행하는 등 풀뿌리 주민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또 다



른 측면으로 성대골은 국사봉중학교 학생들에게 생태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에너지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다.

설명을 들은 후 우리는 동네탐방에 나섰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가었지만, 우리 동네 곳곳을 탐방하며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특히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성대골에서의 에너지를 절약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라고 생각하니 우리 동네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났다. 한편으로 성대골의 사례처럼 주택단지인 우리 동네도 작은 것에 신경을 쓰다보면 지금보다 살기 깨끗한 동네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바라게 되었다.

동네탐방 후 마을협동조합 김소영대표님과과의 점심식사는 기후 환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말은 “우리 세대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었다. 지구의 온도를 1.5℃를 넘지 않아야만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기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셨다.

오늘 배우고 느낀 것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즐거운 제2의 인생 날개를 펴다



김 환 수
(부천시니어클럽 문화해설사업)

내가 근무하는 펄벅기념관은 성주산 줄기에 큰 골짜기를 끼고 있는 심곡동에 자리 잡고 있다. 심곡(深谷)이란 말 그대로 깊은 골짜기답게 팔을 양쪽으로 펴고 마을을 앉은 듯 모양을 하고 있고 철 따라 가지가지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낸다.

펄벅기념관 방문객은 타 문화 박물관에 비하여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기념관 방문을 통하여 펄벅이 지닌 이상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질문한 부분의 해설만이 아니라 방문객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끌어 펄벅의 위업의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듣기만 하는 방문객에게 질문을 유도하여 관심을 자아내게 하며 오늘도 열심히 해설하고 있다. 해설사로서 일을 할 때 펄벅의 위업과 정신을 일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과 연결해서 해설하고 주제를 선택해 토론하면, 방문객들에게는 밝은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일부러 보람과 즐거움을 찾아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

한편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수만큼이나 나의 인간됨이 성숙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펄벅의 이상을 배워가면서 나 또한 나의 삶을 성찰해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생활 방침을 변경한다. 하루를 일정표에 따라 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개인적인 지출은 최소로 줄여 남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내가 문화 해설사로서 얻은 값이고 변화다.

나는 오늘도 근무지의 마당과 뜰을 걷는다. 늘 하는 일이라도 그 속에는 '목적, 계획, 의지, 의무, 가치, 사명, 우정, 소속감, 성취' 등등 찾아보면 보석 같은 숨겨진 의미 있는 비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된다.

며칠 전에 비해 바람이 더 시원해졌다고 느끼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문화해설사로 참여한 후 사회에 감사할 말은 무엇이며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변화와 보람이 있던 점들 그리고 즐거웠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해 보기로 했다.

나는 여기서 나의 과거를 잠시 말하고 싶다. 1960년 설이 지난 며칠 후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시다 보니 중학교 3학년 새 학기의 등록을 못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나는 가난한 집안의 6남매 가장으로 농부가 되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67살에 일에 은퇴를 하였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학업 중단 52년 후인 나이 67살(2011년)에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하고 8개월 만에 중·고등학교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그해 2011년 가을 학기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등록 후 3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함께 공부한 20~30대 학생들에 비해 10배를 더 노력한 결과, 대학교 최고령인 나에게 학교는 졸업식 날 특별상을 주었다.



이후 나는 공부를 계속하여 전문 상담가가 되기로 했다. 이미, 대학교 재학 중에 심리 상담학을 전공하려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하고 드디어 대학원 입학 전형 날, 나는 교수님들의 질문에 포박 포박 대답을 하면서 내 이상을 말했다. 그 순간 기쁜 일이 일어났다. 전형이 끝나자 교수님들은 자

리에서 일어서서 환영의 예식을 해 주었다. "어르신, 우리 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는 "이런 모습으로 환영하는 것은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라고 교수님들이 갖춘 예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대학교에서 최고령이었지만, 대학원에서 그 학교 개교 이래로 고령자로서 처음이었다. 행복한 날들이 설 사이 없이 지나가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또 열중하면서 졸업 후의 이상을 키워간 후 73살인 2017년 8월에 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람들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학교에 다닌다고 했지만 난 아직도 학생 시절의 등록금 빚을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학교생활은 참 행복했지만 현실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의 문을 두드리니, 문화해설사로서 내가 가진 것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고 그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일하는 곳에서 행복하지만 나는 더 나은 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부천시민평화대학 '회복적 정의' 교육을 마치며



공미영
(2018 부천시민평화대학 1기 수료)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산다. 그러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작년 큰아이의 새 학기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날 무렵, 아이를 괴롭혔던 반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척이나 가슴 아팠고 화도 났다. 당장이라도



상대방 아이를 똑같이 아프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마음은 매일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그러던 와중에 친구의 권유로 부천시민평화대학 회

복적 정의 교육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다. 물론 현재도 어렵다.

응보적인 질문이 아닌 회복적 정의의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내면까지 들여다 봐야 하는 이 지난한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내적갈등을 겪었다. 평화적 감수성을 지니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집중하며 가해자의 삶까지 이해해야 하는, 이 회복적 정의란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일까? 대단히 이상적이고 판타지적이지 않은가, 생각했다. 그런 의구심에도 수업을 놓지 못했던 것은 결국 딸에 때문이었다. 아이가 앞으로 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웠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그리고 일 년의 과

정을 배우면서 점점 변해가는 나와 마주했다. 늙은 아버지가 내뱉는 말의 행간을 헤아리고 들숨 날숨의 높이까지 새겨들게 되었다. 흔하게 지나쳤던 말들이 하나의 숨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변화는 동전처럼 뒤집히는 게 아니라 물처럼 스미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 수업을 듣던 와중에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피스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동안 6호 보호처분을 받은 한 아이의 멘토가 되었다. 첫 대면에서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를 따뜻한 품으로 보호해줘야 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모든 어른을 불신하게 만든 것 같았다. 아이의 첫 세상엔 그렇게 균열이 가 있었고 금세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난 아이의 말을 꼬집어내기에 앞서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이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밉지 않다는 말에서 아이는 눈을 반짝였다. 그러곤 정말 밉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그 일은 그 아이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한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대답했다. 그때 부터였다. 아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재잘거렸다. 몸을 잔뜩 움츠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굽은 등을 펴고 나와 눈을 마주치던 그 짧은 순간, 진심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 듯했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단단한 중유석이 만들어지듯, 세상의 평화는 느리지만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 어떤 흔들림도 오롯이 일어난 경우는 없다. 잔잔한 수면에 이는 파문의 원인을 찾는 것이 회복적 정의가 아닐까. 하나하나 되짚어 올라가는 길 찾기를 통해 중국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모두의 평화일지 모른다. 수업을 듣는 과정 중 가장 내 마음에 닿는 말은 이 말이었다. '누구나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가치관은 허울 좋은 포장지일 뿐인 것이다. 가치관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발아하기 위해 오랜 공이 응당 필요하지 않나. 씨앗이 꽃이 되는 순간, 그것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부천시민평화대학 1기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복적정의 기초과정 총96시간을 수료하였고 2019년 4월부터 평화감수성, 트라우마의 이해, 갈등전환, 갈등조정자를 주제로 심화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5월 7일부터 부천시민평화대학 2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부천YMCA 홈페이지를 참조 해주세요.

공간에 '사람'을 담다



왕정현
(광장기자단, 마중등대 쫓불)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우리 엄마는 서점에 간다.
서점이라는 그 공간에서, 책과 글을 통해 배려와 감동을 받는다.
3권의 책은 한 달 동안 수고한 엄마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이번 글은 오키로북스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보고자 한다.

살롱의 부활 : 취향 맞는 사람들의 아지트-‘co-working space’

독립 서점은 새로운 살롱이다.

지은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동네서점이다. 하지만 동네마다, 학교 앞에 있던 서점은 거의 다 사라졌다. 거대 자본과 유통시스템을 가진 대형서점이 쇼룸 안의 입점 되어 있는 형태로 남아있다. 나 역시 온라인으로 책을 사는데 편하다.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읽고 교과서를 포장하듯 책을 포장해주는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던 동네 놀이터 같은 책방은 이제 없다.

하지만, 개성 있는 다양한 독립 출판물뿐만 아니라 사진 보고 그림 그리기, 오직 원정대, 책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기, 일상을 가꾸는 글쓰기 등의 소모

임과 북바인딩 워크숍 같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독립서점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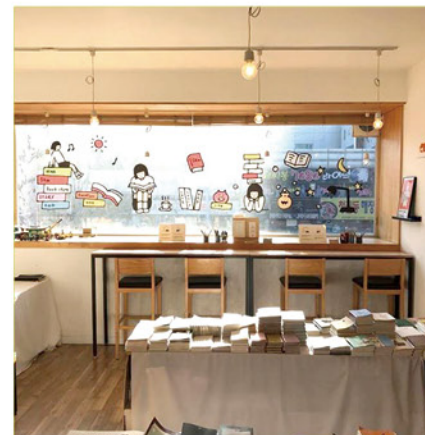
동네 책방처럼 가까이 있는 독립서점 ‘오키로북스’

홈페이지 : <http://5kilomarket.com/>

인스타그램 : cafe5kmbookstore

주소 : 경기 부천시 경인로 211-1 2층 오키로북스

연락처 : 010-4907-1870



문화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

함께 모이면 차를 마신다.

책이나 음악은 사람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모든 것을 한 공간에 담아보자.

누구에게도 간섭 받고 싶지 않지만 이해 받고 싶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려와 감동에 목마른 우리들은 결국 '사람'을 찾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취향저격 수다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참고도서 : 라이프 트렌드 2019 젠더 뉴트럴 Gender Neutral/김용섭 저

“새해의 시작”



한 면 회
(부천YMCA 등대생활협동조합 이사)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갑니다. 해맞이의 명소인 동해의 정동진이나 포항 호미곶, 여수 향일암 등 먼 곳까지 가서 새로운 해 즉 새해가 뜨는 것을 보고 환호하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매일 해가 뜨는데 새로운 해가 무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새해의 시작은 양력(陽曆) 1월 1일인데 왜 동지(冬至)의 10여일 후로 정했을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서 그 근거를 찾아봅시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흰 눈 사이로 루돌프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달리는 것으로 보아 추운 북쪽 지방에 삽니다. 흰 눈과 루돌프사슴인 순록이 단서입니다.

한대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렵생활을 하니 순록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썰매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동지 무렵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낮에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이상한 듯도 하지만 북극에서는 추분(秋分)에서 춘분(春分)까지 6달 동안은 해가 뜨지 않고 나머지 6달은 해가 매일 떠있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동지 무렵에 해가 지고 며칠 후에 다시 해가 뜨면 그 해를

새해라고 하고 그 날을 1년의 시작일로 정하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새해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양력 1월 1일은 동지인 12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농경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1년을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1년의 시작은 당연히 입춘(立春)이 됩니다. 금년이 돼지해 중에서도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입춘 이후에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음력(陰曆)은 달의 모양을 보면 날짜를 알기 쉽고, 사리와 조금의 물때를 알기 쉬워 생활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양력과 음력을 모두 수용한 태양태음력을 사용하여 1년의 시작을 입춘이면서 음력 초하루인 날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양력과 음력의 차이로 들어지는 날짜는 4년에 1일의 윤년과 19년에 7달의 윤달로 보정하여 19년마다 다시 맞추어 시작합니다. 설날인 음력 1월 1일은 보통 입춘의 절기인 대략 2월 4~19일 안에 들어갑니다. 금년 2019년은 설날이 2월 5일이고 입춘은 2월 4일로 하루 차이가 납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이니 새해의 시작은 동지, 입춘, 춘분이 주요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춘분을 1년의 시작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성술에서는 양자리(3월 21일~4월 20일)에서 물고기자리(2월 20일~3월 20일)까지의 12별자리가 1년이며, 또 유대인의 종교력은 태양태음력으로 춘분부터 시작하는 음력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새해의 결심과 각오가 벌써 흐트러진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체질에 맞는 설날에 다시 시작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제13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2018년 11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3일에 걸쳐 제13회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천YMCA 회원 180여명과 유베이스, 아시아문화인권연대, 외국인노동자의집, 지역시민 등 약 225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여 45개 지역아동센터의 개별 가정, 송내동과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개별 가정,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와 외국인노동자의 집 회원가정, 물푸레공동체, 모퉁이쉼터, 각 동의 어려운 가정 등 총 276가정에 김장 10kg 1박스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2019 국제교류 - 아프리카로 만나는 자유



2019년 2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의 서아프리카 전통 예술 활동 동아리 청년들이 멀리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를 찾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익히고 돌아올 청년들의 후속활동이 참 기대가 됩니다. 문화의집만의 특별한 활동. 서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단의 활동과 국제교류를 응원해주세요.

2019 아프리카로 만나는 자유 (1/4~3/15 매주 금요일 오후7~9시)



2019년에도 아프리카로 만나는 자유(이하 아만자)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 지루한 일상을 바꾸고 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올해도 아만자와 함께 즐겁고 신나게 춤춰보아요.^{^^}

베트남 평화순례



2019년 1월 12일(토)부터 17일(목)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부천YMCA 회원과 청소년 18명이 베트남의 호이안, 동하, 쉐 지역으로 평화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첫 여정으로 선미박물관, 풍니, 하미마을을 위령비를 돌아보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드리고, 생존자와의 만남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감로 시장과 베트남 왕궁, 미선유적지를 돌아보며 베트남의 문화를 경험하고, 베트남 통일 기차를 타고 동하 지역으로 이동하여 남과 북이 나뉘었던 17도선과 2,8km 지하 터널에서 600명이 생활하였다는 빈목터널을 거닐며 생명의 신비와 공동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참회하며, 베트남이 거대강국을 무너트리고 통일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되어 통일이 되는 그 날을 꿈꾸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며 귀국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여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주요일정 •



정기이사회

일시: 2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6층 신나는방

부천YMCA 제38회 정기총회

일시: 2월 21일(화) 오후 7시 / 장소: 5층 체육관

생활신앙강좌

<에니어그램으로 본 성서이야기>⑥

일시: 2월 26일(월) 오후 7시 / 장소: 6층 신나는방
강사: 이은재 목사

봉사원수련회

일시: 3월 9일(토) / 장소: Y회관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7회 정기총회

일시: 3월 21일 오후 7시 / 장소: 6층 신나는방

아이스포츠단

제35회 수료&졸업식

일시: 2월 20일(수) / 장소: 5층 체육관

2019년도 학부모 입단 설명회

일시: 2월 23일(토) 오전 10시
장소: 송내어울마당 3층 행복나래

입단식

일시: 2월 6(수) / 장소: 5층 체육관

어린이Y

1학년 오리엔테이션

일시: 2월 19일(화) / 장소: 2층 한마음반

지도자클럽 1학기 개강

일시: 3월 12일(화) / 장소: 2층

체육교육팀

수영장 재등록: 2월 19일(화)~23일(토)

수영반 변경: 2월 25일(월)

3월 수영신규등록: 2월 26일(화)

어린이 응급처치교육: 2월 27일(수)~28일(목)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르키나 문화예술 기행: 2월 7일(목)~26일(화)

• 클럽일정 •

아버지교실

월례회

일시: 2월 20일(수) 오후 8시 30분

장소: 5층 나눔방

정기모임(난타)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장소: 6층 신나는방

그린합창단

정기연습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6층 신나는 방

G樂P樂

정기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장소: 5층 나눔방

등대생협

등대위원회

일시: 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4층 사랑방

저녁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2월 27일(수) 오후 7시

장소: 4층

낮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2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6층 신나는 방



녹색가게

운영위원회

일시: 2월 8일(금) 오후 12시30분

장소: 5층 나눔방

제22회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접수: 2월 19(화)~21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판매: 2월 22일(금)~26(화)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부천시청 1층 로비(원미지역학교)

원미어울마당 지하1층 교복은행
(소사, 오정지역)



부천YMCA

제38차 정기총회 공고

부천YMCA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7시
- 장소: 부천YMCA 5층 체육관

1부 밥상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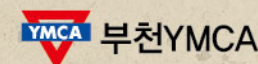
(6:30부터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2부 공동예배

3부 정기총회

1.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2. 이사 및 감사의 선거
3. 헌장개정
4.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사람·어울림·꿈



제22회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 ※ 판매금액에서 위탁판매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은 3월 말에 개별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 판매되지 않은 교복은 교복은행 상설매장에 무상 기증됩니다.
- ※ 위탁판매 수수료와 무상기증 교복판매 수익은 매년 12월에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복 한 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증명서 제출)

일시

- 접수기간 : 2월 19일(화)~21일(목) 오전10시~오후4시
- 판매기간 : 2월 22일(금)~26일(화) 오전10시~오후4시 ※2월 23일(토) 교복판매 정상 운영
- ※ 교복물려입기 행사종료 후 원미어울마당 지하1층 **교복은행에서 연중 판매**(평일 오전11시~오후5시, 032-613-6821)

장소

- 부천시청 1층 로비(원미지역 학교) 녹색가게 사무국 ☎ 325-3100
- 원미어울마당 B1층(소사지역, 오정지역 학교) 교복은행 상설매장 ☎ 613-6821
- ※ 교복접수 시 교복을 세탁한 후 옷걸이에 걸어서 통장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적어오세요.
(가능한 농협계좌로 기록해주시면 수수료가 적습니다.)

학교별 교복 판매 장소

- 부천시청 1층 로비 (원미지역 학교)
계남중, 계남고, 경기에술고, 경기국제중상고, 부명중, 부명고, 부인중, 부천중, 부천여고, 부천정보산업고, 부곡중, 상도중, 상동중, 상동고, 상일중, 상원고, 상일고, 석천중, 소명여고, 심원중, 심원고, 원미중, 원미고, 중원중, 중원고, 중흥중, 중흥고
- 원미어울마당 지하 1층 교복은행 (소사, 오정지역 학교)
부일중, 부천남중, 부천동여중, 부천동중, 부천여중, 부천일신중, 성주중, 소사중, 소사중, 역곡중, 반박고, 부천고, 부천공고, 소사고, 송내고, 시운고, 내동중, 덕산중, 덕산고, 도당고, 부천북고, 부천여월중, 성곡중, 까치울중, 수주중, 수주고, 원종고

접수 및 판매 물품

- 동복 자켓 10,000원
- 바지, 치마, 가디건 각 5,000원
- 조끼 4,000원
- 셔츠, 블라우스, 생활복 각 3,000원
- 타이, 라본 각 1,000원
- 참고서, 체육복 상, 하 각 1,000원

